

조선시대 산릉제사의 정비가 왕실원찰의 건축계획에 미친 영향

홍 병 화 *

1. 서론
2. 왕실원찰의 종류와 변화의 추이
3. 조선 초 산릉제사의 두 가지 성격
4. 조선 초 능침사의 건축공간과 그 성격
5. 기신재의 퇴조와 능침사의 통폐합
6. 조선 후기 조포사의 대두와 재실의 등장
7. 조선 후기 왕실원찰 건축형식의 혼란
8. 결론

1. 서론

조선은 억불과 승유를 주창하였지만 건국 초기 산릉의 수호와 제사를 사찰에 맡겼다. 이것은 불교를 숭상하던 이전 왕조들에서 종종 사용되던 방법으로 조선 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교적 효와 불교적 방식이 서로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이 국가의 기틀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국조 오례의』 편찬을 통해 국가가 지내야할 제사를 정비하게 되는데, 이때 俗祭로 간주되던 문소전과 산릉에서의 제사를 국가가 지내야할 공식 제사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문소전과 산릉에서의 제사는 불교로부터 영향 받은 속제였음에도 조선의 공식적인 제사가 된 것이다.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 졸업.

산릉제사가 국가에서 지내야 하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처럼 산릉제사를 더 이상 능침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조오례의』에 산릉제사가 포함된 이후 불교식으로 실행되던 산릉제사인 기신재를 철폐하고, 유교식으로 지내야 한다는 대신들의 주장이 줄기차게 있었지만 오래된 전통 때문에 이는 쉽게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조금씩 변화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16세기 중반까지 이어진다.

불교에 대한 조선의 태도는 전·후기 차이가 컸는데, 전기는 억불을 위해 국가체제 내에 남아있던 불교적 요소를 배제하려고 노력하였고, 후기는 국가가 불교의 현실적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백성들에게 부과해야 할 각종役을 불교에게 전가하다시피 하면서 그 보상으로 불교를 묵인하듯 하였다고 한다.

이번 연구는 국가나 왕실이 가진 불교에 대한 입장이 가장 잘 반영되는 왕실원찰의 위상과 역할이 조선 후기는 전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고, 그 변화가 건축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 초기 왕실의 호불적 성격에 기초한 능침사 운영이 산릉제사의 국가의례화 이후 새로운 제도에 의해 변화하면서 전체 왕실원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2. 왕실원찰의 종류와 변화의 추이

조선시대 원찰은 역할에 따라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산릉관리와 제사를 담당하는 능침사와 왕실인사들의 극락왕생·장수·안녕을 비는 위축원찰, 태실을 지키는 사찰 그리고 산릉제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조포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¹⁾

1) 이 논문에서 능침사는 산릉을 수호하는 사찰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구자들에 따라 능침사는 능·원·묘와 관련되어 설치된 원찰을 말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산릉을 관리하고 제사를 실행하는 즉, 능침을 수호하는 사찰을 능침사라 엄밀하게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산릉의 인근에 지정된 원찰이라고 해도 산릉수호는 하지 않고 능주의 명복만을 비는 사찰은 능침사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능침수호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면

물론 원찰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능침사에서도 일상적으로 왕실인사의 축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 후기에는 원찰로 지정된 기록을 발견할 수 없는 사찰에서도 왕실의 극락왕생과 만수무강을 기원했기 때문이다.

〈표 1〉 조선시대 왕실원찰의 시기별 지정 양상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미상	합계
위축원당	15	34	8	21	33	26	4	141
능침사	2	12	3	2	6	-	1	26
齋社	-	4	2	2	6	-	1	7
造泡寺//屬寺	-	-	-	3	7	5	24	39
胎室守護	2	7	3	2	4	-	-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의 일부를 〈표 1〉처럼 간추려 보면, 왕실원찰의 역할에 따른 분류와 시기에 따른 지정빈도를 정리해 볼 수 있다.²⁾

능침사는 15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후로는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위축원당은 사림이 국정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16세기에 잠시 주춤하고 줄곧 어느 정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³⁾

이번 연구에서는 〈표 1〉에서 능침사로 구분된 사찰 중에도 능침사로 구분되지 않는 사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그리고 〈표 1〉에서 齋社는 능침사가 같다고 볼 수 있다.

2) 탁효정, 2012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이 논문의 〈부록 2〉는 '조선시대 왕실원당표'를 정리한 것으로, 〈부록 2〉는 「묘전궁릉원묘조포사조」를 중심자료로 정리된 것이다. 이 자료는 20세기 초 조선총독부가 과거 능침봉들에게 지시를 내려 모아온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로 19세기 원찰의 실태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부록 2〉는 원찰의 지정횟수를 정리한 것으로 같은 사찰이 시기를 달리하며 중복지정된 경우도 있으며, 내원당은 생략하였다고 한다. 필자가 탁효정 선생에게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조포사의 자료정리에 대한 선생 자신의 오류를 교정해 주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원찰을 역할과 시기별로 구분한 연구자들은 이외에도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구분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손성필, 2016 『16세기 조선의 정치·사회와 불교계』 『동국사학』 61, 43-86면. 이 논문에서

태실을 수호하는 사찰은 15세기가 가장 많이 지정되었으며, 이후로도 명맥을 유지하다가 19세기에는 한 번도 지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포사는 17세기 이후 지정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⁴⁾ 조포사의 경우 ‘미상’이 24개 사찰이나 되는데, 이 사례들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모두 조선 후기에 지정된 것이 확실하다.

〈표 1〉의 합계를 인정하더라도 이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찰의 큰 흐름은 매우 의미가 있다. 능침사는 조선 초기 많이 지정되고, 조포사는 조선 후기에 들어야 본격적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위축원당은 16세기를 제외하고는 전후기 구분 없이 비교적 고르게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조선 초 산릉제사의 두 가지 성격

유교국가인 조선은 선왕선후의 제사를 종묘에서만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국초기에는 산릉과 문소전에서도 지내고 있었는데, 이것은 불교에 영향 받은 오래된 습관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은 1474년 『국조오례의』에 산릉과 문소전의 제사가 정식으로 포함되면서 관행을 공식화 하는 방향으로 해결한다.⁵⁾

국가적 차원에서 산릉제사를 지내기로 한 후에는 능침사에서 실행되던 산릉제사인 忌晨齋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⁶⁾ 능침사의 기신재는 공

는 16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사람이 불교를 말살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16세기는 불교를 탄압한 시기가 아니라 방임한 시기로 보고 있으며, 佛教徒 역시 성군이 선정을 펼쳐 교화해야 할 일반백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16세기는 불교에게 주던 특혜가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4) 造泡寺란 두부를 만드는 사찰을 의미하는데, 제사에 꼭 필요하지만 상하기 쉬워 거리가 멀면 운반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산릉의 인근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사찰들이 이를 만들면서 조포사라 하였다. 이처럼 제사에 직접 간여하지 않고, 제수만을 공급하는 사찰을 조포사라 부르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거리와 상관없이 산릉제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 지원하는 모든 사찰을 조포사라 하고, 조포사만으로 물품 마련이 어려운 경우 造泡屬寺를 지정하고 조포사를 지원하게 하였다.

5) 정재훈, 2007 「조선 후기 왕실 忌晨祭의 실행과 운영」 『규장각』 31, 203-206면.

식적 산릉제사인 忌晨祭와 성격이 중복되기도 하고 異教의 의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철폐하자는 주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래서 성종대와 중종대는 물론 명종대인 16세기 중반까지도 출기차게 철폐 주장은 지속되었다.

조선은 개국군주인 이성계가 유명한 호불군주라서 초기부터 조상의 능역에 능침사를 지정하여 산릉을 수호하게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⁷⁾ 이후로도 태조와 두 명의 비, 정종과 비 등의 능에는 齋宮을 두어 이곳에 승려들을 머물게 하여 산릉을 관리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⁸⁾

『세종실록』 세종 6년 4월 21일 네 번째 기사에는 각 산릉을 수호하는 승려에게 급여를 지급한 기사가 있다.⁹⁾ 이처럼 승려가 머물며 산릉을 수호하던 공간이 있었지만, 이것을 사찰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재궁이라 칭한 이유는 불교를 비호하며 의지한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세조~성종대의 사례를 보면 산릉을 능침사가 수호하고 기신재도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산릉제사를 공식화하였음에도 기신재 실행은 왕실 인사들의 호불적 성향 때문에 계속 이어졌던 것이다.¹⁰⁾

이처럼 산릉제사의 정비 이후에도 기신재는 단번에 철폐되지 않았지만, 거듭

6) 忌晨祭와 忌晨齋는 사실 매우 유사한 성격으로 보인다. 기신제는 유교식 제사화된 산릉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신재는 불교식 재의를 말한다. 두 의례의 내용은 모두 돌아가신 부모(先王과 先后)를 위한 의례이다. 忌晨齋는 능침사에서 우선 불교식으로 명복을 빌고 나중에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천도재형식의 재의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기신제는 국가에 의해 공식화된 산릉제사이다. 이 기신제도 상차림이 불교식인 素膳이라고 비판받은 것을 보면 유교식으로 공식화되기는 하였지만, 그 연원은 불교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국조오례의』 이후에는 기일에 산릉 정자각에서 기신제를 지내고, 인근의 능침사에서도 기신재를 지내는 중복 실행이 어느 정도 이어졌던 것이다.

7) 탁효정. 2016 「조선초기 능침사의 역사적 유래와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77, 17-28면. 이 글에서는 태조 4대조인 환조부터 정종까지 모든 능에는 능침사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8) 『태종실록』 권16, 8년 7월 29일.

9) 『세종실록』 권24, 6년 4월 21일.

10) 정인사, 봉선사, 신륵사 등의 불사는 분명히 산릉을 수호하기 위해 행해진 불사이다.

된 대신들의 요구로 1516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기신재 철폐를 선언한다. 그러나 기신재는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던 명종대까지도 간간이 이어졌는데, 이것은 이때까지 능침사도 운영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국조오례의』를 편찬한 이후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는 능침사가 포함되는 산릉의 정자각에서는 忌晨祭도 지내지만 동시에 능침사에서 忌晨齋도 근근이 실행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종대부터 명종대까지는 산릉제사의 두 가지 성격이 유지되던 시기인 것이다.

4. 조선 초 능침사의 건축공간과 그 성격

이미 앞선 연구에서 이 시기 지어진 능침사의 건축계획을 언급하면서 중심사역에 정자각과 비슷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가 있었다.¹¹⁾ 그렇다면 이 능침사들의 정자각형 공간과 산릉의 정자각은 어떤 관계일까?¹²⁾

두 공간을 비교해 보면 산릉의 정자각과 능침사의 정자각형 공간은 외관이 비슷할 뿐 공간의 구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능침사에서 정자각의 배위 청에 해당하는 건물은 모두 중층의 종루라서 그 아래로 출입하지만, 산릉의 정자각은 그렇지 않다.¹³⁾ 이렇게 형태는 유사하지만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산릉의 정자각과 능침사의 정자각형 공간은 같은 성격일 수 없다.

11) 홍병화 · 김성우, 2008 「조선시대 사찰에서 鐘樓 배치계획의 의미와 변화」『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 이 글에서 '정자각형 공간'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산릉의 정자각처럼 한 건물이 아니고, 정문과 문루가 직교하듯 배치되어 형성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13) 『拭疣集』「正因寺重創記」“南橫長廊（중략）長廊外 縱立鐘閣一間 上棲鐘鼓 下通出入” 남쪽에서 횡으로 놓인 장랑 (중략) 그 장랑 밖에는 종으로 놓인 한 칸의 종각 그 위에는 종과 북이 있고, 그 아래로 출입한다.



〈그림 1〉 일제강점기 봉은사의 정자각형 배치

이 두 공간의 성격차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사의 대상이다. 정자각은 산릉의 제사공간이라서 위폐 없이 능에다 직접 제사를 지내지만, 능침사는 모두 위폐를 봉안하고 있어 산릉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다.¹⁴⁾ 즉, 기신재를 지내는 사찰의 정자각형 공간은 위폐를 사용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어 능을 바라보면서 지내는 산릉의 정자각과는 다르다.

이렇게 의례의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능침사에 정자각형 공간을 구성한 이유는 陵寢의 寢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공간인 정자각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공간은 先王先后의 명복을 비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정자각과 같은 형식의 공간은 동아시아의 제례에서 자주 발견되는 보편적인 건축공간으로, 공간의 활용과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큰 공간일 뿐, 특별히 산릉제사에만 적합한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¹⁵⁾

14) 정재훈, 앞의 논문, 203-204면. 이 글에 소개된 의례의 절차는 마치 선왕의 신주를 천도재에서 영가처럼 취급하고 있어 천도재 방식으로 기신재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절차로 보아 기신재는 제사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기일 새벽에 지내는 천도재로 효를 다하는 의미에서 의례정비 전까지는 제사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5) 이영, 1997 「정자가 건축유형에 관한 비교연구」『아시아문화연구』2. 이 글에서 정자각형 건축은 ‘명당’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명당이란 건축군에서 중심성에 대한 인식으로 동아시아에서는 불교, 유교, 신사건축 등에서 다양하게 구현되었다고 보고 있다.

5. 기신재의 퇴조와 능침사의 통폐합

기신재의 철폐 주장 제기와 1516년 철폐 선언, 그리고 반복되는 복설과 문정왕후 시대가 끝나면서 실질적으로 기신재가 사라지게 되는 수십 년 동안은 유교식 산릉제사인 기신제가 국가의례로 정착하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15세기 후반부터 점차 줄어드는 기신재를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1556년인 명종 11년의 『명종실록』 기사를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회암사는 유명하고 큰 사찰이어서 모든 능의 기신재를 비록 여기에서 실행하지만 능침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¹⁶⁾

이 내용을 보면 산릉마다 정해진 능침사에서 기신재를 실행하던 조선 초와는 다르게 모든 산릉의 기신재를 회암사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문정왕후와 보우에 의해 중창된 청평사도 15세기 능침사와 같은 배치였다는 사실과 17세기 중반 중종·명종·인조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전하는 것을 보면, 청평사에서도 회암사처럼 기신재를 지냈을 가능성은 크다.¹⁷⁾

기신재는 1516년 공식적 철폐 이후 중간 중간 다시 실행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분명하였으며, 회암사의 기사와 청평사의 배치를 통해 모든 산릉의 제사를 하나 혹은 두 개의 사찰에서 지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왕은 회암사를 능침으로 인정하고자 하지만 대신들은 회암사는 능침이 아니라고 맞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¹⁸⁾ 회암사는 실제 산릉에서 멀리 떨어진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조선 초 능침사의 경우는 모두 산릉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조선 초 능침사는 사찰이면서 동

16) 『명종실록』 권21, 11년 9월 3일 “檜巖則乃是名藍巨刹，凡各陵忌晨齋，雖設行于此，不可例以陵寢論也。”

17) 엄황, 『춘천읍지』(임민혁 외 역주, 1997 『춘천지리지』, 춘천시 문화예술과, 53-56면).

18) 『명종실록』 권21, 11년 9월 3일.

시에 산릉과 일체된 공간이나 시설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후 국가의례가 확립되면서 배제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점차 기신재가 줄어들어 능침사가 통폐합되면서 능침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여러 능주의 기신재를 통합하여 하나 혹은 두 개의 사찰에서 지내다 보니 기신재가 실질적으로 철폐되기 직전에는 회암사 또는 청평사의 사례처럼 능침사와 산릉과의 거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6. 조선 후기 조포사의 대두와 재실의 등장

산릉제사의 공식화에 따라 기존의 능침사와 기신재가 위축되는 것은 예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산릉의 관리주체가 능침사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텐데 이 새로운 주체가 실록과 같은 공식기록에서는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개국 초에는 왕조실록에 재실이라는 명칭이 많이 나오지만 상당수가 종묘와 문소전 등의 재실을 의미하는 것인지 산릉재실을 지칭하는 사례는 제한적이다.¹⁹⁾

그러나 다시 『세종실록』 세종 28년 7월 19일 열 번째 기사인 ‘능실제도’를 설명하면서는 ‘齋室’이라고 적고 있어 이 시기 산릉에서도 재실이라는 명칭이 보이기 시작한다.²⁰⁾ 이처럼 조선초에는 산릉을 관리하는 공간을 齋所, 齋室, 齋宮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守陵’하는 공간을 다양하게 부르는 것으로 재실제도의 정착이전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후 『성종실록』 성종 24년 8월 5일 두 번째 기사를 보면 신의왕후의 무덤인

19)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사이트(<http://sillock.history.go.kr>)에서 ‘齋室’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국역 367건, 원문 401건이 검색된다. 국역과 원문이 차이나는 것은 원문을 해석하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기는 차이이다. 태종부터 성종까지 등장하는 47번의 재실 용례 중에 세종대에 4번, 성종대에 3번 등 총 7회 만 산릉재실을 의미하고 있다.

20) 『세종실록』 권113, 28년 7월 19일.

제릉의 재실을 수리하도록 하는데, 이때 인근 마을에 알려 수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²¹⁾ 제릉은 처음부터 연경사를 능침사로 삼았는데, 여기서 재실이란 연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²²⁾

만약 연경사와 재실이 각각 별도의 시설이었다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상 재실을 수리하는데 마을에 수리하라고 하기보다는 연경사에게 수리하라고 하였을 것 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능침사의 역할이 산릉을 수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실의 관리도 능침사의 역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15세기 후반까지는 산릉을 관리하는 공간이나 주체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 불명확한 부분은 있지만 연경사와 제릉과의 관계 등으로 보아 산릉의 관리 주체는 아직까지도 능침사였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더 흐르면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되는데, 『중종실록』 중종 20년 3월 7일 첫 번째 기사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영사(布營使) 안윤덕(安潤德)이 아뢰기를, “봉선사(奉先寺)가 봉선전(奉先殿) 재실(齋室)과 아주 가까워 행행 때에 중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합당치 않기에 우선 나가도록 하려 하자. 주지승(住持僧)이 ‘절에 보물(寶物)이 많으므로 간수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간수하는 중 두어 사람만 머물러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보내기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봉선전과 절의 거리가 면데 어찌 꼭 내보내야만 하겠는가? 서쪽 상주하는 곳으로 나가 있도록 하라.”하였다.²³⁾

이 기사를 보면 봉선전[眞殿]을 봉선사의 동쪽에 지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봉선전에 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봉선전의 위치를 봉선사의 경내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 기사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사찰과 인접한 곳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시기는 기신재의 철폐가 공식적으로 선언된 이후로 봉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승려를 물리친다고 하고 있다.

21) 『성종실록』 권281, 24년 8월 5일.

22) 연경사를 능침사로 삼았다는 정확한 기록은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 다만, 태종이 연경사에 법회를 열고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중창을 지원하는 등 연경사를 통해 제릉을 수호 토록 한 다양한 기록은 확인할 수 있다.

23) 『중종실록』 권53, 20년 3월 7일.

眞殿이 있는 산릉이 그렇지 않은 산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진전에서 지내는 제사와 산릉에서 지내는 제사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기사를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절을 비우라는 지시로 보아 산릉을 수호하되, 제사는 국가에서 관리들이 직접 나와 지내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능침사로서의 봉선사 역할이 이전과는 다르게 축소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로, 능침사는 재실을 포함한 봉선전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려의 경우는 능침사보다 왕의 초상을 봉안하는 진전사원이 더 보편적이었는데, 진전사원에서 제사를 지내도 사찰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왕은 참여만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기사 속의 봉선사 상황과는 다르다. 이 기사 속의 상황은 봉선사는 평상시 봉선전을 관리하지만 제사가 있을 때는 국가에서 사람이 나오고 봉선사에서는 자리를 비우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미 조선 초기와는 다르게 산릉의 수호와 제사에서 능침사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능침사의 역할 변화는 造泡寺의 등장과 연결된다. 여기서 조포사란 산릉에서 지내는 제사에서 사용되는 제수를 사찰에 맡긴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²⁴⁾ 이전에는 능침사의 지위에서 불교가 산릉제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조선 후기부터는 조포사로서 산릉제사를 보조하는 수준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조포사라는 명칭이 원찰의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조포사는 원찰의 한 유형으로 재실에 제수를 공급하는 사찰을 의미한다. 조포사라는 명칭이 가장 이른 사례는 18세기에 발견되지만,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찰은 적어도 숙종대부터 나타난다고 한다.²⁵⁾

또한 산릉관리의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陵誌가 18세기 초부터 집중적으로 작성되는데, 능지가 본격적으로 작성된다는 것은 산릉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

24) 한국불교진흥원, 1994 「권말부록: 서울 및 근교사찰지」『다보』, 1043면.

“奉恩寺卽造泡寺[寺造豆泡 以供陵寢之祭需故云 豆泡豆腐之俗名]” 봉은사는 조포사다.
[사찰에서 두부를 만드는 것은 능침의 제수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두포는 두부의 속칭
이다.]

25) 탁효정, 2012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93-98면.

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으로 이시기 산릉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⁶⁾

18세기에 산릉제도를 정비한 이유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능지의 작성이 집중되는 시기와 조포사의 확산되는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분명히 별개로 이해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능지에는 산릉관리의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조포사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거나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산릉관리의 중요한 주체인 조포사를 공식적 기록에 배제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당시 불교의 위상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문제이다.

정리하자면 왕실원찰의 한 종류인 능침사는 조포사의 보조를 받는 재실에 의해 대체되었는데, 이것이 조선 전기와 후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7. 조선 후기 왕실원찰 건축형식의 혼란

조선 후기에도 원찰을 능침사라고 부르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의 능침사는 조선 전기 능침사와는 달리 제수를 공급하는 사찰을 의미한다. 즉, 조선 후기에 능침사라 부르는 사찰은 전기와 달리 조포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²⁷⁾

앞에서 언급했던 능침사의 소멸은 국가가 직접 산릉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능침사는 서서히 축소되어 결국에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능침사의 상징과도 같은 정자각형 공간을 갖춘 사찰은 조선 후기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우선 대표적으로 봉은사·봉선사·대홍사·화엄사 등과 같이 임란 이후 중창된 주요사찰에서 조선초 능침사의 건축계획인 정자각형 공간이 재현된 것이다.²⁸⁾ 이 시기는 이미 기신재가 철폐된 이후로 국가가 지원하는 기신재의 실행

26) 유지복, 2013 「조선시대 능지연구: 창릉지를 중심으로」, 『장서각』 31, 182-209면.

27) 탁효정, 2016 「묘전궁릉원묘조포사조'를 통해 본 조선 후기 능침사의 실태」, 『조선시대사 학보』 61, 200-209면.

28) 아세아문화사 편, 1980 『대둔사지』, 322-323면. 이 책의 부록으로 실린 「죽미기」는 『대둔 사지』를 집필할 때 참고한 원래의 사적기이다. 책 뒷부분에 실린 「죽미기」의 「廣張額數」

은 없었다.²⁹⁾

이후에도 정자각형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계속 확인되는데, 영주 부석사·창녕 관룡사·오대산 상원사·양양 낙산사 등이다.³⁰⁾ 이 사찰들은 대체로 18세기 이후에도 정자각형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사찰로 현재로서는 정자각형 공간이 온전히 남아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

조선전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능침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정자각형 공간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즉, 조선 후기에는 정자각형 공간을 갖추고 능침사에서 실행하던 기신재를 실행하던 사찰이 없었던 것이 분명함에도 정자각형 공간은 이어진다는 것이다.³¹⁾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사회는 급속히 家禮가 보급되고, 사회전체의 분위기는 완고한 성리학적 분위기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는 결과적으로 왕실과 불교와의 관계를 이전과 비교하여 훨씬 비공식적인 관계로 변화시키게 된다. 그렇지만 원찰의 운영이 전기에 비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18세기 전반기에는 기록상 조선시대 전체에서 가장 많은 원찰이 설치되기까지 한다.³²⁾

를 보면 性淳이 중창한 ‘大陽門兼宗室位’가 나온다. 고고미술동인회, 1965『고고미술자료 7 불국사·화엄사 사적』. 화엄사의 사적에도 역시 ‘大陽門兼宗室位’가 보인다. 대양문은 당시 전형적인 정문의 명칭이고, 종실위는 왕실일가의 위패로 대양문이 곧 왕실의 위패를 모시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봉은사와 봉선사의 경우 임란이후에 중창된 현상이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져,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모두 정자각형 공간을 갖추고 있다.

- 29)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기신재의 마지막 기사는 명종 11년(1556) 회암사에 관한 기사이다.
- 30) 부석사는 현재의 범종루가 정자각형 공간의 일부로 그 앞에 세워졌던 정문이 없어진 상태이며, 관룡사는 현재 문루인 원음각에 걸려 있는 「嶺左昌寧縣東九龍山觀龍寺圓音閣重修有功記」(1830년 기록)에 원음각이 정자각형 공간이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오대산 상원사는 한국전쟁 직전에 찍은 사진에 보면 불전을 감싸는 회랑과 그 앞에 돌출된 정자각형 공간을 볼 수 있다(〈그림 3〉 참조). 낙산사 역시 18세기 후반 김홍도가 그린 ‘낙산사도’를 통해 정자각형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1) 왕실의 호불적 전통과 당시 승군체제를 중심으로 국가에 호응하던 불교계의 현실과 전쟁의 피해를 국가와 왕실의 암묵적 지원 아래 재건하고 있던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불교계가 자발적으로 기신재를 지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왕실 원찰 중 상당수가 실제로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왕실 영가에 대한 천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기신재인지는 불분명하다.

전기와는 다르게 후기에는 국가의 개입 없이 왕실의 사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원찰이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설치된 원찰은 왕실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고운사 연수전



송광사 성수전(現 관음전)

〈그림 2〉 고종의 耆老所 원당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같은 시기, 동일 인물에 대한 똑같은 목적으로 원당이 설립되더라도 사용된 건축형식이 전혀 다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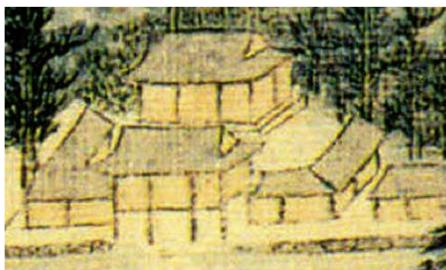
대표적으로 高宗의 장수를 기원하는 기로소 원당의 경우 고운사에 지어진 것은 기로소 건축을 차용하였지만 송광사의 경우 일반 불전과 마찬가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조선 전기 능침사에서는 역할과 이에 따른 건축형식이 유지되던 것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로, 왕실은 원당 설치의 이유와 자금을 지원하면 사찰이 주도적으로 건축형식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오대산 상원사의 경우 김홍도의 그림에 표현된 건축형식과 일제강점기 직후 촬영된 흑백사진 간의 건축형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18세기 후반의 모습에는 회랑으로 표현된 공간이었으나, 이후 정자각형 공간을 갖춘 전형적인 조선 초기 능침사의 공간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8세기 후반 김홍도의 그림에서처럼 정자각형 공간이 없다가

32) 박병선, 2001 『조선 후기 원당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7면. 이 논문의 〈표 5-1〉에 의하면 16세기 중반인 선조부터 철종까지 왕실원찰의 수를 102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중에 숙종부터 정조까지 52개가 설립된다. 특히 영조대가 23개로 가장 많다.

이후 중수과정에서 정자각형 공간을 새롭게 구성했다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원찰의 역할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사찰측의 건축적 선택의 문제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시기 상원사는 원찰로서의 지위나 역할이 바뀌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18세기 김홍도의 그림(전면)



일제강점기 직후 사진(후면)

〈그림 3〉 조선 후기 상원사의 중심영역의 변화

그렇다면 이처럼 건축형식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조선 후기 다른 원찰들이 정자각형 공간을 갖춘 이유와 마찬가지로 정자각형 공간이 갖는 상징성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조선 초기 능침사가 구현했던 공간이 이후로도 원찰의 전형적인 상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이 시기 상원사는 원찰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8. 결론

산릉제사가 국가의례로 자리 잡으면서 능침사의 역할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그 동안 능침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과 역할이 재설과 조포사, 그리고 다른 원찰들로 옮겨간다. 이러한 변화는 불교에 대한 조선의 태도 변화를 바탕에 둔 변화로 완고한 성리학적 인식에 의해 국가의 공식 영역에서 불교의 영향력을 배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역이라는 차원에서는 불교도도 백성이이라고 보고 조포의 의무를 지우기도 하였다.

전기 능침사의 지위가 점차 후기 조포사의 지위로 바뀌는 원찰의 변화는 이를 둘러싼 국가제례의 정비와 공식화되는 재실 운영이라는 국가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능침사에서 조포사로의 변화는 단순히 역할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관계가 공식적 관계에서 점차 부수적이면서 비공식적 관계로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에도 원찰은 지속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오히려 전기에 비해 원찰 지정의 빈도는 늘었다. 하지만 전기에 비해 현저하게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관계는 왕실이 축원을 의뢰하며 재정을 지원하면 나머지는 사찰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위축을 위해 건축되는 건축형식의 일관성이 전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조선 전기에는 능침사의 전형적인 상징으로 여겨지던 정자각형 공간인 문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왕실원찰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건축을 기능과 상관없이 재현하더라도 규제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 후기 불교가 국가나 왕실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큰 틀의 변화는 능침사와 조포사의 관계에 내포되어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주제어 : 능침사, 조포사, 산릉제사, 기신재, 정자각

투고일(2017. 10. 12), 심사시작일(2017. 10. 24), 심사완료일(2017. 11. 7)

〈Abstract〉

The Space of the Royal Buddhist temple under the influence of
The Royal ancestral rites adjustment

Hong, Byung Hwa *

The adjustment of the Royal ancestral rites in Joseon Dynasty had influenced on the system of the temples for guarding the Royal Tomb.

The guarding temple had to be changed after the official authorization of memorial service at the Royal Tomb as a tradition. Namely, the type of Royal Buddhist temple had affected by reduction and abolition of the Buddhist Royal Ancestral Rites.

The main role in Royal ritual ceremony by the guarding temple had phrased out in the early period of Joseon and it replaced to the ritual space in the Royal Tomb called Jaesil operated by the dispatched officers.

The system of the Royal ancestral rites had changed from the Buddhist management to the direct governmental management and the Royal Buddhist temple had a tendency to get a prefer architectural space without national regulation.

The changed relationship between the Royal household and the Buddhist society into informality than before made the governmental support become unofficial and the architectural restriction become discharged.

As it had got out of the official control in ceremony, it was possible to manage its own characteristic space and it had acquired the active space out of restriction.

Key Words : Temple guarding the Royal Tombs(능침사), Temple supporting the Royal Tombs(조포사), ancestral rites of royal tomb(산릉제사), Buddhism ancestral rites(기신제), T-shaped building(정자각)

* Ph.D. Architecture, Yonsei University.